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를 잇는 국내 최초의 사장교 진도대교.

85년전 여수~오동도 시작... 물과 섬, 섬과 섬 44개 이어져



2부 다도해는 '다리박물관'

① 일제~1980년까지

229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모두 2219개의 섬을 가진 전남은 물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의 '박물관' 다를 아니다. 연장에서 사암비, 디자인, 특징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의 다리가 서남해안을 수놓고 있다. '단돈' 7억원의 사업비로 25m를 연결한 다리부터 무려 1조원이 넘는 거액이 투자돼 6km 넘는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로 있다. 광주일보는 전남도의 협조를 얻어 개통한 서남해안의 다리 44개 사진과 함께 주요 사황을 5차례에 걸쳐 지역인문에서는 최초로 게재한다.



전남 최초 연륙교 여수~오동도 다리.



완도 소안도~죽도 다리.



1968년 완공후 2012년 재준공한 해남~완도를 잇는 완도교.

1주탑 비대칭 완도대교·첫 사장교 진도대교...

1980년대 들어 연륙·연도교사업 본격화

접근성 제고 불구 '섬 특수성' 상실 부작용도

전남의 연륙·연도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여수~오동도가 최초이며, 그 뒤로 38년이 지난 1968년 해남과 완도를 잇는 완도교가 설치됐다. 1970년 여수 소라~달천도, 1975년 무안 해제~신안 지도 등에 이어 1980년대 11개, 1990년대 12개, 2000년대 12개, 2010년 이후 5개가 각각 물과 섬, 섬과 섬을 이었다.

이미 완공돼 사용중인 다리는 모두 44개로, 총연장은 31.6km에, 투입된 돈만 2조9581억원에 달한다. 전남도 등은 26곳(40.4km)에서 연륙·연도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34곳(48.2km)에 더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각 4조4674억원, 4조78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물과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데 무려 1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 다리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그에 따른 관광객 증대,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무시할 수 없지만 연륙·연도 10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섬'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섬이 가진 '특수함'은 상실된다는 반작용도 있다. 섬이 물에 흡수되고, 섬주민의 이주가 계속되면서 섬이 맞이할 변화도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섬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국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연륙·연도교 사업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일제는 수려한 경관이 돋보인 오동도를 어떻게 편하게 접근하고자 했던 것 같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난해했던 연륙교를 1930년 처음으로 시도했다. 연장은 768m에 폭은 11.5m(2차선)인데, 방파제 형식으로 물과 섬을 이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이 다리의 영향인지 연간 300만명 이상이 오동도를 찾고 있다.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핵심거점으로 섬의 모양이 오동임을 담았으며, 오동나무, 동백나무 등의 군락으로 유명하다.

이후 연륙교가 들어선 것은 38년이 지난 1968년이다. 해남 달도와 완도 율동을 잇는 완도교가 놓인 것이다. 57억원의 예산으로 190m의 다리가 생기면서 해남과 완도가 하나가 됐다. 이 다리는 44년이 지나 2012년 2월 재준공됐는데, 국내 최초로 하나의 주탑에 좌우가 비대칭하게 지지되는 '1주탑 비대칭 사장교' 형식으로 지어졌다. 연장 500m, 폭 24m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고, 명칭도 완

도대교로 바뀌었다.

2년 뒤인 1970년 여수의 소라면 북산리와 달천도를 연결하는 달천교가 들어섰다. 필요에 따라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장 150m, 폭 7m의 이 다리는 1999년 8월 다시 준공됐다.

1975년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와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를 연결하는 연장 380m 폭 7m의 제방 형태의 다리가 놓이면서 무안과 신안이 비로소 연결됐다. 이 다리에는 당시로서는 거액인 114억원이 투입됐다.

일제강점기 이후 30년간 들어선 다리는 고작 3개로, 모두 국가기관인 익산국도관리청이 맡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탓에 국가기관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연륙교를 주로 맡아 발주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1980년대 초반에는 기업의 수요에 의한 다리들이 잇따라 건설됐다. 대표적인 것이 광양에 들어선 금호교, 태인교 등이다. 1980년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연장 168m, 폭 20m의 금호교는 고려 황동관 받침이 사용된 다리다. 4년 뒤에는 광양시 금호동과 태인동을 잇는 태인교가 들어섰는데 연장 150m, 폭 25m로, 이들 모두 광양철이 지은 것이다.

1980년에는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의 상죽도와 하죽도를 연결하는 연장 25m의 다리도 개통됐다. 7억원이 소요된 이 다리는 비법정다리로, 1997년 연장 510m, 폭 8.2m의 다리로 재준공됐다. 아마도 전남 최초의 연도교인 이 다리의 경우 섬주민들이 오고가는 단순 기능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에는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와 완도를 잇는 남창교가 연장 180.2m, 폭 20.0m의 규모로 들어섰다. 철재 빔을 주재료로 한 비교적 단순한 다리로, 1999년 재가설됐다.

1984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다리들이 잇따라 개통하고 있다. 먼저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를 잇는 진도대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 최초의 사장교(케이블에 의해 보와 주탑을 연결해 지지하는 다리)로 연장 484m, 폭 11.7m의 규모다. 국도 18호선을 연결하며 145억원이 투입됐다. 이로써 진도는 섬에서 물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같은 해 전남에서 최초로 1km가 넘는 다리가 생겼다. 완도의 소안과 죽도를 매립하는 형태로 소안 도선장에서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방식인데, 연장이 1082m, 폭은 10.0m다. 죽도 거주 섬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1980년대 초반까지 연륙·연도교의 가설 주체는 중앙정부나 기업이었으며, 섬주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비교적 물과 가까운 섬을 대상으로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4년 12월 15일~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원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방) HOTER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3일째	조식후-민공예물전시장~조랑말체험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에코랜드-기차타고꽃자랑(자연원시림)술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몽골리안 마상소(현지직방) 포함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음션(현지직방), 기사, 가이드팁 1인 ₩10,000원 * 동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원버스 1인 ₩20,000원	중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중식 :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상기일정 은 현지상황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수중매커지됩니다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문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원버스, 입장료, 줄부시,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원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줄부시, 식사4식(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해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서 : 문명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명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